국가보훈처

# 보 도 자 료

든든한 보훈
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배포 일시 | 2022. 8. 4.(목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국제협력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박경미(044-202-59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신지영(044-202-5914) |



## 박민식 국가보훈처장, 미 하원 보훈위원장 접견
## 사상 첫 한·미 군인들의 상호호혜적 의료지원 위한
## < 한·미 베트남 참전군인 의료지원> 방안 논의

□ 박민식 보훈처장, 사상 첫 한·미 군인들의 상호 호혜적 의료지원 위한 <한미 베트남 참전군인 의료지원> 방안 논의 위해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(Mark Takano)의원과 오늘 오전 서울에서 회동 실시

□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미국 군인이 받는 동일한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마크 타카노(Mark Takano)의 <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(Korean American VALOR Act)>의 실질적인 지원 위한 방안 논의

□ 미국 시민권 받은 3천여명의 한인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법안 통과시 실질적 의료 혜택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내 베트남전 당시 혈맹으로 참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영원한 우방으로서의 역사적 사실 재확인 계기 마련

□ 관련 법안 통과시 6.25전쟁으로 맺어진 한미양국의 혈맹의 의미가 베트남전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 기대

□ 국가보훈처는 4일 “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(Mark Takano) 의원을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접견, 한미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”고 밝혔다.

○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,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‘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(Korean American VALOR Act)’을 발의한 장본인이다.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이다.

▸하원 결의안(H.R.) 234 제1조 및 제2조

(내용요약)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 내의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, 동 서비스는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.

* 미국은 하원에 보훈위원회(The House Committee on Veterans' Affairs)를 두고 있음

○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약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, 그동안 베트남 참전 한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

□ 이번 만남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 방미 일정 중이던 지난 7월 27일, 미 의회의사당에서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해당법률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한데 이어, 이번 방한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.

□ 방미 당시 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카노 위원장은 **“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,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혜택들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동일한 혜택을**

**누려야 한다**"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박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었다.

□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워싱턴에서 이어진 오늘 면담에서 **"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, 한·미가 6.25전쟁에 이어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"**고 강조하며

**"이는 한·미 양국이 공동희생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6.25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가 베트남전 참전으로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."**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 <끝>